2008 새해설계 ⑦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 지부장 정해균

"갈비탕과 소주1병은 대접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해야"

포천시 위생과 신설로 6천여개 업소 관리 업무 처리해야

2002년 12월27일 취임 후 지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 정해균(사진) 지부장은 2천여명의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포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지부는 2천여 회원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세무서에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자 대행업무 중단을 요구해와 세무사 1인을 고문으로 모시고 대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포천시지부는 각 읍면동에 모범음식점 117개소를 지정했다. 앞으로 150개 업소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회원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회원업소중에 어려운 업소를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부는 또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율이 2.7%였던 것을 1.5%~2%로 조정해 회원업소의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정 지부장은 파주시의 경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50%를 감액해 주고 있다며 포천시에서도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나마 모범업소에 매년 25만원씩 지원했던 인센티브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5만원으로 하향조정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지원금으로 각 음식점에 필요한 칼이나 도마, 물수건 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지부장은 지난 2월 물가인상률이 3.6%로 자고 나면 물가가 올라 업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에 갈비탕 한 그릇에 5천원이었던 것이 요즘에도 5천원이다. 따라서 음식점 10곳이 개업하면 7~8개 업소는 문을 닫고 있다.

회원업소가 3천여개이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1만5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음식업 지부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홍보는 물론 지켜야 할 사항과 점검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음식업지부의 역할이 다양하다.

회원들은 월 7천원부터 1만원까지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회비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지부에서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사항에 대해 정 지부장은 "과거에는 선거철이 오면 호황이었는데 선거법 개정이후 선거철이 다가오면 불황이 예고된다"며 "제18대 국회에서는 갈비탕 한그릇과 소주1병은 대접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은 "포천시 관내 음식점과 식품다과류 업소는 약 6천여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계는 고작 6명이 근무하고 있어 1인당 1천여개 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생과 신설을 통해 해당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정 지부장은 "우리 관내 업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의 먹거리를 소개하는데 있어 산정호수에는 산채비빔밥, 풍혈산 순두부, 이동면 갈비, 고모리 먹거리촌, 깊이울 오리고기 등 각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음식점별로 홍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의 사업 및 업무는 ▶자율지도(위생감시) 업무 ▶식품위생 및 보건향상에 관한 사업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대행 ▶인보사업 ▶기타사업(방역사업, 법령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대정부 건의, 회원업소 권익보호위한 제반사업, 식생활문화개선의 발전에 관한 사업) 등이며 건의사항으로는 ▶무신고업소, 포장마차 근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시청 직원 1주일 1내지, 1달 1번은 청사 밖 음식점 식사 ▶하천변 5일장 이용으로 지역자금 외부 유출로 인한 음식점 경기 악화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과묵(寡默) 무게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요즘 사람들은 비만으로 인해서 체중과의 온갖 전쟁을 버리고 있다. 그래서 소위 다이어트 식품, 헬스기구, 운동으로 소위 별보기운동 등 별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람은 무게로 따져서 가치를 정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반드시 무거워야만 좋은 것이 아니고 커야만 좋은 것도 아니다. 물질 문명(文明)이 휩쓰는 선진 사회에서는 역시 사람도 물질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구의 종류나 일상의 장신구(裝身具), 사용하는 음식의 값어치로 보아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잘못된 가치 기준이 서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한국말은 좋은 격언이다. 아무리 작아도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진가는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집트의 여왕, 절세의 미인이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작고 무게가 가벼운 여성이었음이 틀림없다. 클레오파트라는 시저 앞에 나갈 때 자기 몸을 양탄자로 둘둘 말게 하고 양탄자와 자기를 군인 한 사람에게 짊어지고 가 시저 앞에서 풀어놓게 하였다.

이런 기발한 인사에 시저가 녹아 버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가벼운 여자였음에 틀림없는 것 같다.

가볍고 무거운 것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속에 들어 있는 자질(資質)과 인격(人格)으로 따지는 개념이므로 과묵(寡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량(重量)을 남에게 인정받을만한 실력(實力)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교훈 하시고 있다.

잠언서 11장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고 가르치신다.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㉜

통일토지기본법의 성격

서희석 대성지적GIS기술단 대표이사

◆통합법적 성격

현재 토지에 관한 법제는 공사법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행 남한 실정법은 토지사법은 사익만을, 토지공법은 공익만을 추구하는 일면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토지사법과 토지공법이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통일시 제기되는 토지 문제는 공익적 측면만 강조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익의 보호도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통일에 따른 토지문제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통일토지기본법은 공사법을 총망라한 성격을 띠어야 한다. 즉 통일토지기본법은 헌법 이념에 따라 세부 토지관계 법령의 상위법으로서 토지에 대한 기본 이념 정립을 위하여 기능되는 종합법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특별법적 성격

통일토지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는 제 법률과는 달리 이들을 총괄하는 상위법적 특별법의 기능을 갖는다. 즉 헌법 이념 하에 토지제도를 총 규율하고, 여타 법령의 해석에 기본이 되는 상위법적 성격과 다른 법률과의 효력의 다툼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한시법적 성격

통일토지기본법은 통일 후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여야 한다. 이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자 제정되는 통일토지기본법은 그 목적 달성이 완성되는 통일 후 일정시점에서 효력을 종료하고, 개별 토지관련 법령으로 토지제도를 규율함이 타당하다. 통일토지기본법은 강행 규정적 성격으로 통일이라는 환경 속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자칫 사적 영역이 위축될 염려가 있으며, 통일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 토지 안정이 정착될 시점에는 굳이 강력한 효력의 통일토지기본법 존속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정 당시 한시법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 이는 농지개혁법이 한시법적 성격임에도 현재까지 효력이 계속되어 규범과 현실의 괴리 상황을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타당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 취재 후기

의정부시 문화 한국 입지 세워

김영복 본지 편집국장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부인이 남편에게 폭행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가모독죄를 강하게 적용하는 베트남 국민의 정서가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시와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하이증시를 방문했다.

밤늦게 도착한 하노이공항에서 하이증시로 이동하는 미니버스에 날아든 돌맹이는 유리창을 부수고 일행의 머리위로 유리가루가 날렸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베트남 국민이 한국 국민에 대한 분노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어린이의 장난으로 밝혀졌다.

다음날 하이증시 시장과 의정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등의 공식 미팅이 오전에 있었고 오후 8시부터는 합동공연이 계획돼 있다. 이날 합동공연은 베트남 하이증시와 한국 의정부시 간의 2005년 맺은 문화교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 하이증시 시립무용단이 의정부시를 방문 합동공연을 가진 후 답방 형태로 이루어졌다.

스텝회의에서 공연순서를 정하고 베트남에서 초청했으니 하이증시가 첫 작품, 의정부시가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기로 했다.

공연시간이 되자 600여 객석에는 시민들이 가득했고 나중에 온 시민들은 서서 관람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전통무용과 노래 등으로 구성된 무대와 한국의 전통춤과 창작춤의 무대가 함께 어우러졌다. 객석의 분위기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공연시간 1시간30동안 이날 객석의 관객들은 가슴속에서 끌어오르는 환희를 맛본 듯 얼굴색이 환하게 변하면서 박수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하이증시 홈페이지에 공연 앙코르 요청 글을 올리느라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난생 처음 보는 한국춤에 빠진 베트남 국민들의 밝은 얼굴에서 새로운 국제교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베트남 하이증시 한 공무원에 따르면 14년 전에 북한에서 하이증시에 공연을 왔었다고 한다. 그때 공연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너무 감명 깊게 다가왔다고 한다.

의정부시가 이번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탁월한 기획능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의 문화교류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한국춤을 그들의 가슴속에 각인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의정부시무용단이 창단이후 줄곧 갈고 닦아온 작품 회룡의 울림 공연을 위해 북과 장고 등 악기와 소품을 화물로 이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회룡은 의정부시에서 과거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극적으로 만남을 이루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회룡의 울림이란 작품은 북과 장고와 바라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춤사위와 가락을 통해 한국민족의 흥겨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의정부시가 문화입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이 살아야 인류가 산다"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제10차 정기총회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는 3월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는 3월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기태 총재는 "지금 인류는 대기,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 인간의 삶의 기본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21세기를 넘지 못하고 인류는 멸망하여 사막화되고 마는 숙명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포천시지회가 전국 140여개의 지회 중에서 우수지회로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포천시 환경자원과 청소담당 최재두, 포천시 환경자원과 한대현, 포천여자중학교 교사 엄기해, (주) 동서스텐 대표 이교완, 이유산업 대표 이기수 등이 환경봉사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는 전국 140여개의 지회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 경남 대학교 외 85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생 환경봉사 위원회를 결성하여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슬로건아래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정 주부명예기자단 신북면지부장 jlee67@naver.com

스파게티 전문점! 휘오레

대표 김찬미

찾아오시는 길

메뉴

■크림 베이스 ▶ 해물 크림 스파게티. 까르보나 크림 스파게티. 그린 녹차 스파게티
■브라운 소스 베이스 ▶ 콤비네시션 스파게티. 치킨 스파게티 (자연 베이스) 봉골레 스파게티
■주요리 ▶ 안심 스테이크, 휘오레 정식, 함박 스테이크, 돈까스, 피자치즈 돈까스, 돈까스와 오므라이스, 생선까스, 낙지 볶음밥, 치즈 감자 그라탱, 김치 볶음밥, 어린이 미키마우스, 해물 볶음밥 (음료) (맥주) (생맥주)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5-17 ■Tel. 031)544-3939 H.P 017-292-5543

대한민국 관혼상제 문화의 중심

(주) 렌탈클럽 이지스 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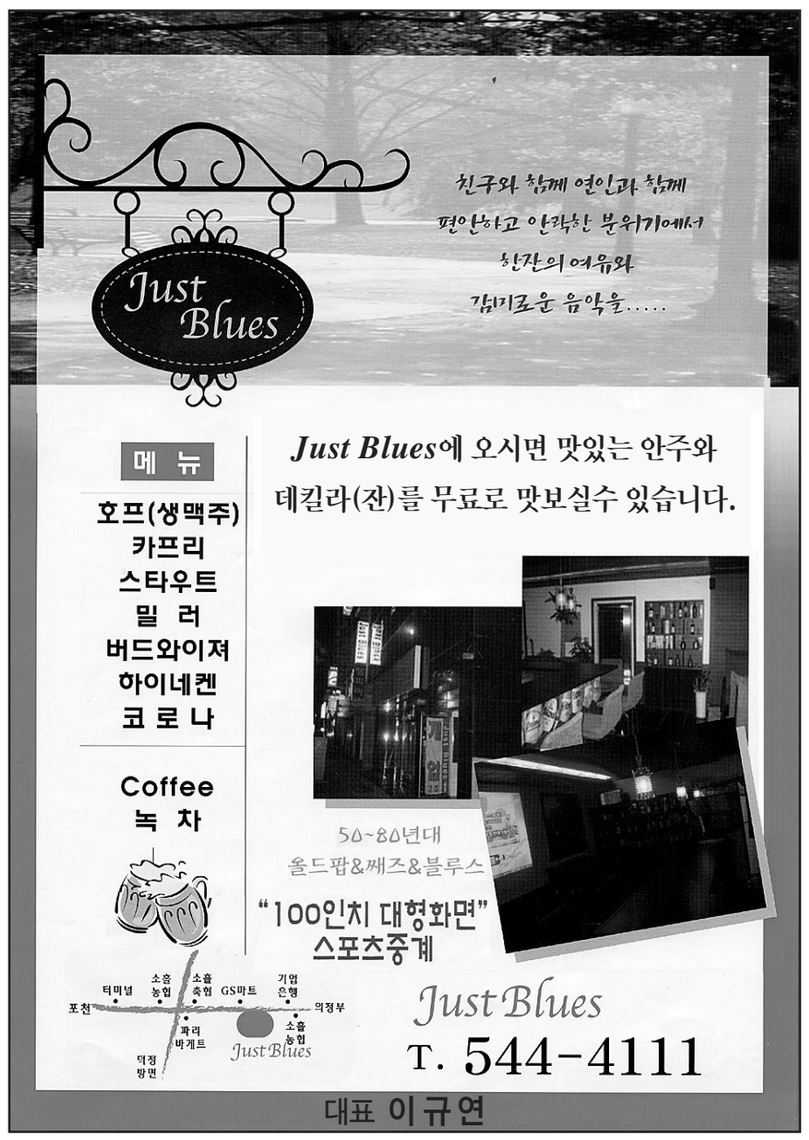
임상빈 경기북부본부장

갑자기 닥칠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사,
이제 안심하십시요.
이지스 상조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지스 상조회원이 되십시요.
회원이 되신후 전화 한통화(☎1566-1024)로
언제든지 이용가능합니다.

상품금액	월부금액	불입횟수(기간)	이용가능한 행사
240만원	2만원	120회	돌/백일/결혼/칠순/팔순/장례
360만원	3만원	120회	
480만원	4만원	120회	

Aegis Group 이지스 상조

Tel. 031-536-0338 Fax. 031-536-3898 H.P. 011-266-2682



대표 이규연